

1. 다음 중 받침의 종류가 나머지와 **다른** 것은?

- ① ㄱ ② ㄴ ③ ㅂ ④ ㅈ ⑤ ㅍ

2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키웁[키웁] ② 곧[곳] ③ 옷[을]
④ 닭다[닭따] ⑤ 있다[인다]

3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닛[닛] ② 었다[언타] ③ 훑다[훑타]
④ 침[칠] ⑤ 많다[만타]

4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밭다[밭따]
② 밭다[밭따]
③ 넓죽하다[넙쭈카다]
④ 넓둥글다[넙둥글다]
⑤ 맑고[막꼬]

5. 받침을 발음하는 양상이 나머지와 **다른** 것은?

- ① 몯 ② 여덟 ③ 외곶 ④ 값 ⑤ 얇

6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한 설명은?

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’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. 이 밖의 받침은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. 따라서 받침 ‘ㄴ, ㅋ’은 [ㄱ]으로, ‘ㅅ, ㅆ, ㅈ, ㅊ, ㅌ’은 [ㄷ]으로, ‘ㅍ’은 [ㅂ]으로 발음한다.

- ① ‘박’은 [박]으로 발음한다.
② ‘빚다’, ‘쫓다’에서 받침은 모두 [ㅅ]으로 발음한다.
③ ‘뉘어’에서 받침 ‘ㅍ’이 [ㅂ]으로 바뀌므로 [더버]라고 발음한다.
④ ‘종다[종타]’와 같이 받침 ‘ㅎ’은 예외적으로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⑤ ‘닭다[닥따]’, ‘키웁[키웁]’을 통해 ‘ㄴ, ㅋ’는 [ㄱ]으로 바뀔을 확인할 수 있다.

7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겹받침 ‘ㄹ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[ㄱ]으로 발음한다. 단, 용언의 어간 끝에 오는 ‘ㄹ’은 ‘ㄱ’ 앞에서 [ㄹ]로 발음한다.

- ① ‘맑다’는 [막따]로 발음해야 한다.
② ‘맑고’는 [말꼬]로 발음해야 한다.
③ ‘맑으니’는 [말그니]로 발음해야 한다.
④ ‘닭고기’는 [닥꼬기]로 발음해야 한다.
⑤ ‘닭가슴살’은 [달까슴쌀]로 발음해야 한다.

8. 밑줄 친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은 것은?

- ① 각을 살리다 → [가글]
② 밭을 다치다 → [밭를]
③ 넋이 나가다 → [넥시]
④ 짚은 다리의 역습 → [짚쁜]
⑤ 었다. 상이다 → [사이다]

9. 밑줄 친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은 것은?

- ① 손을 씻이라 → [씻어라]
② 훑어 보다 → [훑튀]
③ 맑은 물 → [말근]
④ 시조를 읽으며 → [읍프며]
⑤ 아이를 낳았다 → [낱았다]

10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한 설명은?

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,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.

- ① 위 규칙에 따라서 ‘밥을 얻으니’는 [밥을 어드니]로 읽어야 한다.
② ‘깎아’를 [까까]라고 읽는 이유는 ‘-아’가 어미이기 때문이다.
③ ‘몸으로’를 [모모로]라고 읽는 이유는 ‘으로’가 어미이기 때문이다.
④ ‘있으면’을 [잇스면]으로 읽는 이유는 ‘-으면’이 어미이기 때문이다.
⑤ ‘개가 짖어요’를 [개가 지저요]라고 읽는 이유는 ‘가’가 조사이기 때문이다.

11. <보기>를 참고했을 때,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만 묶은 것은?

<보기>

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 이 경우, ‘ㅅ’은 [ㅆ]으로 발음한다.

- ㄱ. 앉으렴[안으렴] ㄴ. 외곶으로[외곶으로]
ㄷ. 닭이[달기] ㄹ. 제값을[제가블]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
④ ㄴ, ㄹ ⑤ ㄷ, ㄹ

12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지 **않은** 것은?

- ① 낳았다[나알따] ② 많다[만타]
③ 많지[만치] ④ 얹어[아나]
⑤ 얹은[알른]

13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의리[이리] ② 자의[자의]
③ 희망[희망] ④ 우리[우리으]
⑤ 무늬[무네]

14.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**않은** 것은?

‘민주주의의 의의’는 []로 발음할 수 있다.

- ① [민주주의의 의의]
② [민주주의에 의의]
③ [민주주이에 의의]
④ [민주주이에 의이]
⑤ [민주주의이 의이]

15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한 설명은?

‘ㄴ’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 중 하나다. 그렇지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ㄴ’는 [ㅇ]로 발음해야 한다. 그리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ㅇ]로, 조사 ‘의’는 [ㅇ]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- ① ‘나의’에서 ‘의’는 조사이므로 [나의]로만 발음해야 한다.
② ‘사랑의’에서 ‘의’는 조사가 아니므로 [사랑의]로만 발음해야 한다.
③ ‘협의’에서 ‘의’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[허비]로 발음할 수 있다.
④ ‘찍어쓰기’에서 ‘찍’는 단어의 첫음절이므로 [찍어쓰기]로 발음해야 한다.
⑤ ‘하늬바람’에서 ‘늬’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[하늬바람]으로 발음해야 한다.

16. (서술형) 다음 글을 참고하여 ‘부엌에서’와 ‘부엌어멈’의 올바른 발음을 쓰고, 그렇게 발음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.

㉠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,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.
㉡ 받침 뒤에 모음 ‘ㅏ, ㅑ, ㅓ, ㅕ, ㅗ, ㅛ’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,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()

17. 다음 문장에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어절의 개수는?

나는 길을 걷다가 본 하얀 꽃의 이름이 궁금했다.

-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

18.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?

- ① 구름 ② 걱정 ③ 필요 ④ 맛있다 ⑤ 먹히다

19. 문장이 **어색한** 것은?

- ① 이제야 대학원 생활을 마쳤다.
 ② 나는 학교에서 교복을 맞췄다.
 ③ 축구공으로 친구 머리를 맞췄다.
 ④ 이 문제 맞히면 바람 쐬고 오자.
 ⑤ 열심히 푼 문제를 맞춰서 기분이 좋다.

20. 문장이 **어색한** 것은?

- ① 빈대떡을 부쳐 먹었다.
 ② 풀로 종이를 이어 붙였다.
 ③ 우편을 부치려 우체국에 갔다.
 ④ 우표를 부친 봉투를 잃어버렸다.
 ⑤ 회의에 부친 안건이 통과되었다.

21. (단답형) 다음 글을 바탕으로 적절한 낱말을 고르시오.

걸잡다: 걸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.
견잡다: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

(걸잡을 / 견잡을)수 없이 사태가 커졌다.
 (걸잡아도 / 견잡아도) 일주일은 걸리겠다.

22.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은?

- ① 나는 그거 **않** 좋아해.
 ② 우리 꼭 우주인이 되자.
 ③ 어떡해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?
 ④ 웬 녀석이 내 사과를 훔쳐 달아났어.
 ⑤ 웬지 모르게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네.

23.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은?

- ① 나는 교사가 되고 **싫다**.
 ② 선생님이 되면 참 **좋겠지**?
 ③ 학생이 떠들면 **흥썬** 때면 되지.
 ④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게 **뻤까**?
 ⑤ 그건 안 **되!**

24. 다음 글을 참고하여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을 찾으려면?

‘**안**’은 부사 ‘아니’가 줄어든 말이고, ‘**않**’은 어간 ‘아니하-’가 줄어든 말이다. 그래서 ‘안’은 문장에서 **빼**도 어색하지 않지만, ‘않’은 문장에서 **빼**면 어색해진다.

- ① 나는 **올지** **안아**.
 ② 착한 게 꼭 **좋지만**은 안구나.
 ③ **않**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곤란해.
 ④ 불평도 하지 **않고** 깨끗하게 앉아 있네.
 ⑤ 내 마음을 **않** 알아주니 너무 섭섭해.

25. (단답형) 다음 글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낱말을 고르시오.

왜: 무슨 까닭으로. 어째서
왠: ×
웬: ×
웬: 어찌 된, 어떠한
웬지: 왜 그런지 모르게. 뚜렷한 이유도 없이.
웬만하다: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낮다

오늘은 (**웬지** / **웬지**) 소고기가 먹고 싶네.

(**웬** / **웬**) 농이나?!

(**웬만해선** / **웬만해선**) 그들을 막을 수 없다.

1. 다음 중 받침의 종류가 나머지와 **다른** 것은?

- ① ㄱ ② **ㅁ** ③ ㅂ ④ ㅈ ⑤ ㅍ

2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키웁[키웁] ② 곧[곧] ③ **웃[을]**
 ④ 닭대[닭따] ⑤ 있대[인대]

3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닛[닛] ② 엇대[언타] ③ 훑대[훑타]
 ④ 침[침] ⑤ **맏대[만타]**

4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밭대[밭따]
 ② 밭대[밭따]
 ③ **넙죽하다[넙쭈카다]**
 ④ 넙둥글다[넙둥글다]
 ⑤ 맏고[맏꼬]

5. 받침을 발음하는 양상이 나머지와 **다른** 것은?

- ① 몫 ② 여덟 ③ 외곬 ④ 값 ⑤ **앞**

6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한 설명은?

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’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. 이 밖의 받침은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. 따라서 받침 ‘ㄴ, ㅋ’은 [ㄱ]으로, ‘ㅅ, ㅆ, ㅈ, ㅊ, ㅌ’은 [ㄷ]으로, ‘ㅍ’은 [ㅂ]으로 발음한다.

- ① ‘박’은 [박]으로 발음한다.
 ② ‘빚다’, ‘쫓다’에서 받침은 모두 [ㅅ]으로 발음한다.
 ③ ‘뉘어’에서 받침 ‘ㅍ’이 [ㅂ]으로 바뀌므로 [더버]라고 발음한다.
 ④ ‘좋다[좃타]’와 같이 받침 ‘ㅎ’은 예외적으로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 ⑤ **‘닭대[닥따]’, ‘키웁[키웁]’을 통해 ‘ㄴ, ㅋ’는 [ㄱ]으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다.**

7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겹받침 ‘ㄹ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[ㄱ]으로 발음한다. 단, 용언의 어간 끝에 오는 ‘ㄹ’은 ‘ㄱ’ 앞에서 [ㄹ]로 발음한다.

- ① ‘맑다’는 [막따]로 발음해야 한다.
 ② ‘맑고’는 [말꼬]로 발음해야 한다.
 ③ ‘맑으니’는 [말그니]로 발음해야 한다.
 ④ ‘닭고기’는 [닥꼬기]로 발음해야 한다.
 ⑤ **‘닭가슴살’은 [달까슴쌀]로 발음해야 한다.**

8. 밑줄 친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은 것은?

- ① **각을 살리다** → [가글]
 ② **밭을** 다치다 → [밭를]
 ③ **넋이** 나가다 → [넉시]
 ④ **짚은** 다리의 역습 → [짚쁜]
 ⑤ 엇다. **샅이다** → [사이다]

9. 밑줄 친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은 것은?

- ① 손을 **씻어라** → [씻어라]
 ② **훑어** 보다 → [훑튀]
 ③ **맑은 물** → [말근]
 ④ 시조를 **읊으며** → [읍프며]
 ⑤ 아이를 **낳았다** → [낳았다]

10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한 설명은?

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,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.

- ① 위 규칙에 따라서 ‘밥을 얻으니’는 [밥을 어드니]로 읽어야 한다.
 ② **‘깎아’를 [까까]라고 읽는 이유는 ‘-아’가 어미이기 때문이다.**
 ③ ‘몸으로’를 [모모로]라고 읽는 이유는 ‘으로’가 어미이기 때문이다.
 ④ ‘있으면’을 [잇스면]으로 읽는 이유는 ‘-으면’이 어미이기 때문이다.
 ⑤ ‘개가 짚어요’를 [개가 지저요]라고 읽는 이유는 ‘가’가 조사이기 때문이다.

11. <보기>를 참고했을 때,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만 묶은 것은?

<보기>
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 이 경우, ‘ㅅ’은 [ㅆ]으로 발음한다.

ㄱ. 앉으렴[안으렴] ㄴ. 외곶으로[외곶쑈로]
ㄷ. 달이[달기] ㄹ. 제값을[제가블]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
④ ㄴ, ㄹ ⑤ ㄷ, ㄹ

12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지 않은 것은?

- ① 낱았다[나알따] ② 많다[만타]
③ 많지[만지] ④ 앓아[아나]
⑤ 앓은[알른]

13. 다음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적절하게 적은 것은?

- ① 의리[이리] ② 자의[자의]
③ 희망[희망] ④ 우리의[우리으]
⑤ 무늬[무네]

14.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‘민주주의의 의의’는 []로 발음할 수 있다.

- ① [민주주의의 의의]
② [민주주의에 의의]
③ [민주주이에 의의]
④ [민주주이에 의이]
⑤ [민주주의이 의이]

15. 다음 글을 참고했을 때, 적절한 설명은?

‘ㄴ’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 중 하나다. 그렇지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ㄴ’은 []로 발음해야 한다. 그리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]로, 조사 ‘의’는 []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- ① ‘나의’에서 ‘의’는 조사이므로 [나의]로만 발음해야 한다.
② ‘사랑의’에서 ‘의’는 조사가 아니므로 [사랑의]로만 발음해야 한다.
③ ‘협의’에서 ‘의’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[혀비]로 발음할 수 있다.
④ ‘찍어쓰기’에서 ‘찍’는 단어의 첫음절이므로 [찍어쓰기]로 발음해야 한다.
⑤ ‘하늬바람’에서 ‘늬’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[하늬바람]으로 발음해야 한다.

16. (서술형) 다음 글을 참고하여 ‘부엌에서’와 ‘부엌어멈’의 올바른 발음을 쓰고, 그렇게 발음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.

㉠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, 제 음 그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.
㉡ 받침 뒤에 모음 ‘ㅏ, ㅑ, ㅓ, ㅕ, ㅗ, ㅛ’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,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(‘부엌에서’는 [부어커서], ‘부엌어멈’은 [부어커멈]으로 발음한다. 왜냐하면 ‘에서’는 조사이므로 ㉠이 적용되고, ‘어멈’은 명사이므로 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.)

17. 다음 문장에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어절의 개수는?

나는 길을 걷다가 본 하얀 꽃의 이름이 궁금했다.

-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

18.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?

- ① 구름 ② 걱정 ③ 필요 ④ 맛있다 ⑤ 먹히다

19. 문장이 어색한 것은?

- ① 이제야 대학원 생활을 마쳤다.
② 나는 학교에서 교복을 맞쳤다.
③ 축구공으로 친구 머리를 맞쳤다.
④ 이 문제 맞히면 바람 쐬고 오자.
⑤ 열심히 푼 문제를 맞춰서 기분이 좋다.

20. 문장이 어색한 것은?

- ① 빈대떡을 부쳐 먹었다.
② 풀로 종이를 이어 붙였다.
③ 우편을 부치려 우체국에 갔다.
④ 우표를 부친 봉투를 잃어버렸다.
⑤ 회의에 부친 안건이 통과되었다.

21. (단답형) 다음 글을 바탕으로 적절한 낱말을 고르시오.

겉잡다: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.
건잡다: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

(겉잡을 / 건잡을)수 없이 사태가 커졌다.
(겉잡아도 / 건잡아도) 일주일은 걸리겠다.

22.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은?

- ① 나는 그거 앓 좋아해.
② 우리 꼭 우주인이 되자.
③ 어떡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?
④ 웬 녀석이 내 사과를 훔쳐 달아났어.
⑤ 웬지 모르게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네.

23.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은?

- ①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.
②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지?
③ 학생이 떠들면 흥썬 패면 되지.
④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게 뭘까?
⑤ 그건 안 되!

24. 다음 글을 참고하여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을 찾으려면?

‘안’은 부사 ‘아니’가 줄어든 말이고, ‘않’은 어간 ‘아니하-’가 줄어든 말이다. 그래서 ‘안’은 문장에서 빼도 어색하지 않지만, ‘않’은 문장에서 빼면 어색해진다.

- ① 나는 울지 안아.
② 착한 게 꼭 좋지만은 안구나.
③ 앓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곤란해.
④ 불평도 하지 앓고 깨끗하게 앓아 있네.
⑤ 내 마음을 앓 알아주니 너무 섭섭해.

25. (단답형) 다음 글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낱말을 고르시오.

왜: 무슨 까닭으로. 어째서
왓: ×
왓: ×
왓: 어찌 된. 어떠한
왓지: 왜 그런지 모르게. 뚜렷한 이유도 없이.
왓만하다: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낮다

오늘은 (왓지 / 왓지) 소고기가 먹고 싶네.

(왓 / 왓) 농이나?!

(왓만해선 / 왓만해선) 그들을 막을 수 없다.